

▶ 달러/원 주간 전망

• 다음은 美 물가 · 고용... 국내외 경제지표 따른 변동성 경계

서울, 8월28일 (로이터)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를 살피며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지난주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잭슨홀 발언은 매파적이긴 했으나 예상했던 수준으로 평가되며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고점에서 떨어졌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라며 "적절하다면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이 주목했던 중립금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목표치와 관련해서는 2%로 유지하겠다고 말하며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 한 주간 10원 넘게 하락해 연고점 부담을 일부 덜어낸 달러/원은 큰 충격 없이 끝난 잭슨홀 이벤트를 무난하게 소화하며 한 주를 시작할 전망이다. 다만, 향후 미국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금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주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지표로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표(31일)와 비농업부문 고용지표(1일)가 있다.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7월 PCE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비 3.3%로 서비스 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직전월(3.0%) 대비 높아지고, 8월 비농업부문 신규 취업자수는 17만명으로 전월(18.7만명)보다 소폭 둔화됐을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의 물가 및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견고할 경우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8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지표(31일)와 차이신 제조업 PMI 지표(1일)가 발표된다. 중국 경기 우려에 따른 위안 약세가 틈틈이 원화 약세를 자극하는 가운데 중국 제조업 지표 결과에 따른 위안과 중국 증시 반응은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27~30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양국 관계 개선 신호가 나타날지도 주목된다.

국내에서는 내달 1일 8월 수출입 무역지표가 발표된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전년비 16.5%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35.7억달러 적자를 기록해 큰 지표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8월 무역수지가 소폭 적자를 보이더라도 9월부터는 흑자로 돌아서고, 수출 반등세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달 마지막 거래일에는 MSCI 8월 정기 리뷰에 따른 리밸런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정기 리뷰에 따르면 EM지수 내 한국 비중이 증가해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수급 변수도 주목해야겠다.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8월28일(월)

- ⊙ 기획재정부: 부총리 S&P 연례협의 (09:30)

8월29일(화)

- ⊙ 기획재정부: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10:00)
- ⊙ 기획재정부: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10:00)
- ⊙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10:00)
- ⊙ 한국은행: 2023년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2:00)

8월30일(수)

- ⊙ 한국은행: 2023년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12:00)
- ⊙ 통계청: 2023년 6월 인구동향·2023년 7월 국내인구이동 (12:00)

8월31일(목)

- ⊙ 통계청: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09:00)
- ⊙ 기획재정부: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 (11:30)
- ⊙ 기획재정부: 2023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15:00)

9월1일(금)

-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8월 수출입동향
- ⊙ 한국은행: 2023년 2/4분기중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12: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8월28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8월28일	17:00	유로존	가계대출	7월		1.7%
8월28일	23:30	미국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8월		-20.00
8월29일	08:30	일본	실업률	7월		2.5%
8월29일	22:00	미국	월간 주택가격 MM	6월		0.7%
8월29일	22:00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MM SA	6월		1.0%
8월29일	23:00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8월		117.0
8월29일	23:00	미국	JOLTS 구인이직보고서	7월		9.582M
8월30일	14:00	일본	소비자신뢰지수	8월		37.1
8월30일	18:00	유로존	기업환경지수	8월		-0.09
8월30일	18:00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8월		94.5
8월30일	18: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8월	-16.0	-16.0
8월30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8월25일 주간		184.8
8월30일	21:15	미국	ADP 전국고용	8월		324k
8월30일	21:30	미국	GDP 수정치	2분기		2.4%
8월30일	23:00	미국	잠정주택판매 MM	7월		0.3%
8월31일	08:50	일본	산업생산 잠정치 MM SA	7월		2.4%
8월31일	08:50	일본	소매판매 YY	7월		5.9%
8월31일	10:30	중국	공식 제조업 PMI	8월		49.3
8월31일	10:30	중국	종합 PMI	8월		51.1
8월31일	10:30	중국	공식 서비스업 PMI	8월		51.5
8월31일	18:00	유로존	CPI NSA	8월		123.36
8월31일	18:00	유로존	실업률	7월	6.4%	6.4%
8월31일	20:30	미국	챌린저 해고건수	8월		23.697k
8월31일	21:30	미국	개인소득 MM	7월		0.3%
8월31일	21:30	미국	소비 MM	7월		0.5%
8월31일	21:30	미국	근원 PCE 물가지수 MM	7월		0.2%
8월31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8월21일 주간		230k
8월31일	22:45	미국	시카고 PMI	8월		42.8
9월1-7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8월		1,253.7B
9월1일	90: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확정치 SA	8월		49.7
9월1일	10:45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8월		49.2
9월1일	21:30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8월		187k
9월1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확정치	8월		47.0
9월1일	23:00	미국	건설지출 MM	7월		0.5%
9월1일	23:00	미국	ISM 제조업 PMI	8월	46.6	46.4
9월1-8일	23:00	미국	자동차 판매	8월		3.140M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8월28일(월)

⊙ 휴장국가: 영국, 필리핀 등

8월31일(목)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남아공 중앙은행 컨퍼런스 연설 및 패널토론 참석
(오후 4시15분)

⊙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벙커힐커뮤니티컬리지 행사 화상연설 (오후 10시)

⊙ 휴장국가: 말레이시아 등

9월1일(금)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남아공 중앙은행 컨퍼런스 패널토론 참석 (오후 7시)

⊙ 휴장국가: 싱가포르 등

▶ 금주 세계 주요 이슈

⊙ 美 경제지표

미국 국제 수익률 급등과 증시 불안정 속에 이번 주 발표될 각종 경제지표가 미국 경제의 상태를 보여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9월1일 발표될 8월 고용지표가 메인 이벤트다. 7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예상보다 적었지만 견실한 임금 상승과 실업률 하락이 노동시장 여건이 여전히 타이트함을 보여줬다.

소비자 신뢰지수, 제조업 지표와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도 예정돼 있다.

⊙ 유로존 물가

지난 1년간 유럽중앙은행(ECB)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경제가 힘을 잃으면서 판단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기업 활동 약화를 보여주는 지표에 많은 트레이더들은 9월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하고 있다. 31일 발표될 유로존 8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5.3%로, 6월 5.5%보다 하락하며 지난해 가을 시작된 둔화세를 이어 갔다. 기초적 물가 상승률은 5.5%로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서비스물가는 상승했다.

한편 독일 분데스뱅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할 리스크가 커졌다고 경고했다. 유럽 가스 가격이 8월 중 20% 급등한 것은 디스인플레이션이 더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9월 ECB의 금리 인상을 배제하기는 너무 이르다.

⊙ 엇갈리는 채권시장

미국 경제가 견실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다.

이에 미국 국채 장기물 수익률은 16년 만의 최고치로 상승했고, 실질 금리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2% 위로 상승해 주식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반면 유럽의 기업활동 수축세 심화로 경제 전망이 악화돼 영국과 독일 국채 수익률은 최근 며칠간 두 자릿수 하락했다.

미국 국채 10년물은 8월에만 수익률이 30bp 가까이 상승하는 등 2월 이후 최악의 월간 성적을 앞두고 있는 반면 전망 악화로 독일과 영국 수익률은 월간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다.

◎ 거대한 선박, 중국

중국은 증시 하락, 위안 약세, 불안한 부동산시장, 부진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이 원하는 과감한 재정 부양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규제당국의 요청으로 A증시 기업 100곳 이상이 주식 바이백을 발표한 것으로 보도됐고, 중국인민은행은 위안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위안 고시환율을 전망치보다 낮게 고시하고 있다.

벽계원의 고요한 건설 현장이 부동산 부문의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는 등 부동산이 문제의 중심에 있다. 일부 개발업체들은 근로자들에 임금을 지불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현금이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중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거대한 선박"이라고 말했다.

31일과 9월1일 발표될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그 배에 물이 새고 있진 않은지를 보여줄 것이다.

◎ 돌아온 엘니뇨

7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엘니뇨가 세계 식품 공급에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기상예보센터는 엘니뇨가 올 겨울 동안 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인도의 장마기간인 8월 강수량이 1901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쌀과 설탕 등 여러 필수 상품의 생산을 위협하고 있다.

인도가 지난달 비바스마티 백미 수출을 금지하면서 국제 가격이 급등했고, 10월부터는 설탕 수출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농산물 생산도 앞으로 건조한 날씨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정리) - 中 당국의 위안화 방어 조치

상하이, 8월25일 (로이터) -

중국인민은행은 부진한 경제와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를 안정시키려 노력하는 가운데 이번 주 위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위안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일부 국내 은행들에게 채권통을 통한 홍콩 거래 채권에 대한 투자를 줄이도록 요청했다고 정통한 소식통 2명이 로이터에 밝혔다.

위안은 올해 달러 대비 5% 이상 절하되며 아시아 통화 가운데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지난 5월 달러/위안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선 이후 위안 약세를 제어하기 위해 당국이 취한 정책 조치 등을 정리한 것이다.

** 8월24일

중국인민은행이 이번 주 홍콩에서 위안화 채권 발행을 확대한 것이 역외시장 유동성을 긴축시켜 위안 안정에 도움을 주었다고 성송청 전 중국인민은행 통계분석국장이 24일 관영 상하이시큐리티즈뉴스에 24일 밝혔다.

** 8월22일

중국인민은행은 달러/위안 고시환율을 수 주째 전망치보다 낮게 고시하고 있는데, 이는 위안의 최근 약세에 대한 당국의 불편한 심기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트레이더들은 해석했다.

22일 고시환율은 로이터 전망치를 이번 위안 약세기 들어 최대폭 인 1105푼 하회했다.

** 8월21일

중국 주요 국영은행들이 21일 역외 위안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포착됐다고 정통한 소식통 세 명이 전했다.

** 8월17일

중국 주요 국영은행들이 위안의 급격한 절하를 제어하기 위해 역내외 스팟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고 위안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했다.

소식통들은 국영은행들의 해외 지점이 런던과 뉴욕 거래시간 중 달러를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8월17일

위안의 움직임은 시장의 수급 다이내믹 뿐 아니라 단기 경제 펀더멘털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중국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다.

** 8월17일

인민은행은 또 위안화 환율을 기본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하는 한편 환율의 과잉 조정 리스크를 단호히 방지하고, 시스템적 재정 리스크를 막을 것이라고 통화정책 이행 보고서에서 밝혔다. (Full Story)

** 8월9일

중국 주요 국영은행들이 9일 역내 현물 시장에서 위안 대비 달러를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통한

소식통 3명이 전했다.

** 8월1일

중국은행은 정책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환율 안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외환 규제당국이 로이터에 밝혔다.

** 7월25일

중국 주요 국영은행들이 25일 아시아 거래 초반 역내외 현물 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통한 소식통 3명이 전했다.

** 7월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정부가 신중한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고수하면서 "정밀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거시적 조정을 시행하고 경기 대응 조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7월20일

중국 주요 국영은행들이 20일 아시아 거래 초반 역외 현물 시장에서 위안 대비 달러를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통한 소식통 2명이 밝혔다.

** 7월20일

중국인민은행과 외환 규제당국이 기업과 금융기관의 역외자금 거시건전성조정계수를 1.25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 7월5일

중국인민은행 기관지인 파이낸셜뉴스는 논평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6월 역내 위안 채권을 순매수했으며, 중국 외환시장에 대한 기대가 안정적이며 국경간 자본 흐름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 7월4일

중국 주요 국영은행들이 한 달 사이 두 번째 달러 예금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정통한 소식통 7명이 밝혔다. 당국이 위안 절하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취해진 조치다.

** 6월29일

중국 대형 국영은행들이 29일 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정통한 소식통 다섯 명이 29일 밝혔다.

** 6월27일

중국 주요 국영은행들이 27일 역외 스팟 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정통한 소식통 4명이 전했다.

** 6월6일

중국인민은행이 감독하는 자율 규제 기구가 주요 국영은행들에 달러 예금 금리를 낮출 것을 요청했다고 정통한 소식통 네 명이 6일 밝혔다. 약화되는 위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6월1일

중국 상무부가 수출 및 수입업체들, 은행들을 대상으로 최근 외환 전략과 위안 약세가 업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소식통 3명이 로이터에 밝혔다.

** 5월26일

중국 주요 국영은행들이 역내 스팟 시장에서 25일부터 26일까지 달러를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통한 소식통 5명이 전했다.

** 5월24일

중국의 경제 펀더멘털과 국제수지, 외환보유고가 대체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위안이 급격한 변동성을 경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영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 5월19일

중국은 환율의 큰 변동을 단호히 억제하고 달러 예금 업무의 자율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중국인민은행이 밝혔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그래프/분석) - 채권 수익률 급등과 글로벌 증시 흔들림으로 불안한 여름

8월21일 (로이터) -

채권 수익률 급등, 에너지 가격 상승,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심화 등 글로벌 증시 랠리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MSCI 세계주가지수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10% 상승했지만 최근 고점에서는 거의 6% 하락했다. 이번 달 S&P500지수와 유럽 스톡스600지수는 약 5%씩 떨어졌다.

다음은 시장 투자자들이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다섯 가지 항목이다.

1. 채권 수익률 급등

투자자들의 주요 걱정 중 하나는 채권 수익률의 급등이다. 이는 예상보다 강한 경제 성장 신호들로 인해 중앙은행들이 현재의 고금리를 좀 더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된 탓이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했고, 인플레이션 조정 후 실질 수익률은 2009년 이후 최고치 부근이다.

영국의 10년 실질 수익률도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 외 지역에서도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식시장 매력을 깎아내리고 있다.

UK and US real yields close to historical highs

Unexpected strength in some economies is pushing real yields - which strip out inflation - to their highest levels in years.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Reuters, August 18, 2023 | By Vincent Flasseur

2. 달러 강세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이 달러를 지지하면서 달러지수는 최근 저점 대비 약 4% 상승했다. 달러 강세는 미국 수출업체와 다국적 기업, 신흥 시장 경제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달갑지 않은 발전이 될 수 있다. 달러 표시 부채를 상환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Dollar bounces from recent lows

A rising dollar could pressure some U.S. companies and emerging markets.

Year-to-date performance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Reuters, August 18, 2023 | By Vincent Flasseur

3. 에너지 가격 상승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전반적으로 완화되긴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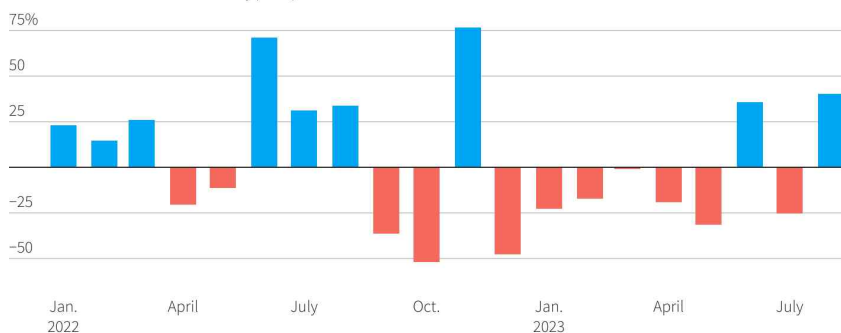
유럽 휘발유 가격은 8월 들어 현재까지 36% 급등, 작년 11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원유 선물CLc1은 9개월 만의 최고치 부근을 가리키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주요 동인인 에너지 시장으로부터의 신호들은 물가 압력이 여전히 높음을 의미하고 있다.

European gas price worries

Rising energy prices are sparking worries that inflation will remain elevated.

Dutch front-month contract - monthly price performance



*Data through August 17, 2023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Reuters, August 18, 2023 | By Vincent Flasseur

4. 타이트해지는 금융 여건

채권 수익률 상승, 주식시장 하락, 달러 강세는 모두 금융 여건을 타이트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금융 여건은 경제에서의 자금의 가용성을 반영하며 중앙은행들은 목표치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근절하기

위해 이를 타이트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골드만삭스가 집계하는 미국 금융여건지수(FCI)는 8월 초 이후 약 50bp 타이트해졌다.

Tightening financial conditions

Falling stock prices and rising yields are helping tighten financial conditions.

Goldman Sachs' U.S. Financial Conditions Index (FCI)



Source: Goldman Sachs Investment Research | Reuters, August 18, 2023 | By Vincent Flasseur

5. 중국 부동산 우려

중국 부동산 부문의 전례 없는 부채 위기와 예상보다 부진한 경제지표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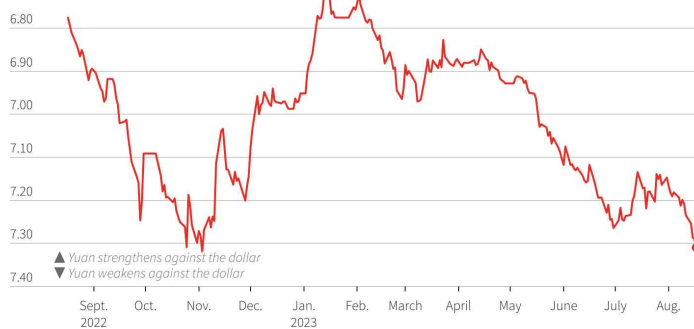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중국은 이미 내수 부진, 공장 활동 부진, 실업률 증가, 해외 수요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노출이 심한 3조 달러 규모의 그림자 은행 부문은 이미 어려움에 처해 있다.

홍콩 항생지수와 위안 가치는 작년 11월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며 이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

금일 모기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물 대출우대금리 금리가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동결됐다는 소식에 중국 부동산 업종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다.

China fears weigh on yuan

Chinese yuan to United States dollar (inverted scale)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Reuters, August 18, 2023 | By Vincent Flasseur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